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43호

[공개토론회]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

1. 엘리트 학생 선수 '출석인정제' 도입될까

원선영 강원일보 기자

2. 7만여명 학생선수...프로의 길, 그밖의 길 학교는 여전히 혼돈

3. 유망선수 학폭과 학생선수 교육

김창금 한겨레 기자

7개 시도 20개 클럽, 36개교 체육활동 지원

지역 스포츠클럽, 학교 체육수업·학생선수 돕는다

김정현 뉴시스 기자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팀

유소년 축구선수 '부정 선발' 혐의 인천 유나이티드 직원 입건

박준철 경향신문 기자

일본, Let's join sports 행사 개최

日 정부 '주 1회 운동 1시간' 목표... "스포츠 즐길 환경 드립니다"

이상훈 동아일보 특파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는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엘리트 학생 선수 '출석인정제' 도입될까

정부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에 나섰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2022년 2차 학교체육교육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제'가 핵심 주제로 논의됐다. '출석 인정제'는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이같은 제도가 없어 적지 않은 학생 선수들이 주말에만 출전을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그동안 "훌륭한 유망주들이 운동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아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 대회 경험이 있어야 랭킹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은 현행 규정에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국대회 출전을 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주는 등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훈련·대회 참가에 따른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수업 인정 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온다. 교육부는 해당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르면 올 연말 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요구가 많다"며 "학생선수의 진로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전문가와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7만여명 학생선수..프로의 길, 그밖의 길 학교는 여전히 혼돈

한겨레
김창금 기자

2022.10.27

“운동하는 아이들 쉴 시간도 없다.” (김나운 학부모) vs “과도하게 운동하는 아이들 이해할 수 없다.” (한태룡 연구원)

“온라인 대체수업을 학부모가 대신 듣는 것 알고 있나?” (안진원 학부모) vs “대리수강 문제 있지만 해결책 찾으면 된다.” (김승겸 교장)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극과 극’의 얘기다. 교육부가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진로 등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고려대 연구팀(책임연구자 조대연 교수)의 학생선수 출석인정제·최저학력제에 대한 성과와 과제 발표 뒤 이뤄졌다. 정책에 대한 선호와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팽팽한 대립이 표출됐다.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정부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부작용이 있지만 정책 유효성이 있다는 쪽과 현실을 감안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섞여 있었다. 이날 연구팀이 발표한 학생선수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출석인정제·최저학력제 보고서에서는 제도의 장·단점이 제출됐는데, 정책이 애초 구상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가 2018년부터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출석인정제란 초·중·고 학생선수의 연간 대회 출전일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60일 이상 허용했다가, 해마다 줄어들어 올해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교 25일이 됐다. 최저학력제는 2017년에 전면 시행된 것으로 학생선수는 학기말 평균성적의 50%(초등), 40%(중학), 30%(고교)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석인정제의 경우 학생선수의 종목별로 대회 개최기간이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공부와 운동을 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가면 출석제한에서 아예 벗어나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완전히 모순된다.

신동혁 서울체고 교사는 “각 종목 단체에서는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꿈나무를 위한 집중훈련에 선수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온다. 시·도마다 이를 적용하는 지침이 각양각색이다. 정말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최저학력제 또한 학교나 지역마다 학력 수준이 다르고, 평가항목도 제각각인데 일률적인 적용을 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초·중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 고교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에서 점수를 따야 하는데, 과목 선정의 근거가 제시되지도 않았다.

김기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학생선수들의 학력기준을 국·영·수 과목으로 어른들이 결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한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최소학업성취수준이 도입돼 현행 최저학력제가 무의미해진다. 새 제도로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학생선수는 초·중·고 전체 530여만 학생의 1.4%에 해당하는 7만여명이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일종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 과거 학교와 운동부는 국가주도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위한 선수 육성기지였고, 올림픽 스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선수는 다른 경력 개발 기회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인권, 학습권, 개인주의 등이 중요시되면서 출석인정제·최저학력제 등이 시도됐지만, 현장에서는 파열음이 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갈린다. “새 제도가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한태룡 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없다. 1%를 위해 99%가 희생될 수 없다”(김승겸 중경고 교장)는 주장도 있고, “출석 일수 따지기 전에 대회 한번 가봐라. 아이들 길바닥에 앉아 대기하고...”(박경훈 인천남부교육청 장학사) “수업대체를 e스쿨로 한다지만, 졸린 아이들 대신해 학부모들이 들어야 한다. 기숙사에 컴퓨터도 없다”(안진원 학부모) 등의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조급증과 연결돼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의 정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최저학력의 기준과목을 국·영·수(고교)로 지정한 것도 선수로 미래 직업을 선택한 학생선수들에게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부라는 개념의 정립도 필요해 보인다. 학부모들은 음악, 미술 등의 영역에서도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학생들이 반복해 연습하듯이, 학생선수들이 운동하는 것도 공부라고 말한다.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은 “좋다고 만든 법과 제도, 정책이 혼란과 분쟁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는 기준부터 불명확하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학생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고 있다. 학생선수도 학생이니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변화 과정에서 먼저 학생선수를 배려하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망선수 학폭과 학생선수 교육

최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사령탑에 취임한 이승엽 감독은 신인 선수인 '학교폭력(학폭) 전력'의 김유성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나라도 같이 가서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당사자의 깊은 반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사회에서 학생선수에 대한 인성 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김유성 외에도 프로야구, 프로배구 등에서 스타급 선수들이 과거 학폭 문제가 불거져 오점을 남기는 사례는 여전하다.

<한겨레> 기획시리즈인 '학교체육, 숨구멍이 필요해'를 취재·보도하는 이유도 학생선수를 포함한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마침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탐색'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학생선수, 즉 학교 운동부 안의 폭력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토론자로 나온 학부모 쪽에서는 현행 학생선수 출석인정제나 최저학력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성토했으며 대폭적인 손질을 요구했다. 운동하는 아들이나 딸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학생선수가 맞닥뜨린 구체적인 조건의 어려움을 알지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학생선수 학폭 문제는 교육적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들의 학습시간 확보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보편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김유성 등 스포츠 선수들이 학폭 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것은 교육부가 정한 출석인정제나 최저학력제 등의 형식적 제도가 수업시간은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성숙한 인격체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출석인정제, 최저학력제를 거쳤다.

학생선수의 학폭은 한국이 근대체육을 도입한 이래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였다. 지금은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종종 학폭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정부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강조하지만,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출석일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물론 야구의 이정후나 축구의 손흥민 등이 국내외 스포츠 무대에서 활약하면 국민적 자긍심이 올라가는 등 사회통합적 시각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주는 무형의 가치가 크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이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운동권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 바탕에 학생선수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라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 스포츠클럽, 학교 체육수업·학생선수 돕는다

올해부터 지역 체육 동호회인 '스포츠클럽'이 정부 지원을 받아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돕게 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정스포츠클럽' 20개를 선정하고 예산 875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지난 6월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체육 동호회다. 정부가 지역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서울, 광주, 경남 등 7개 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지역 내 36개 학교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유형별로 크게 ▲학교 스포츠 활동 지원형 ▲학교 운동부 지원형 ▲학교 구성원 체육 전문역량 함양 지원형 3가지로 나뉜다.

학교 스포츠 활동 지원형은 스포츠클럽에 속한 은퇴선수나 지도자가 학교에 나가 학생들의 체육수업이나 방과 후 스포츠활동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시설과 소속 지도자를 찾아가 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학교 운동부 지원형은 스포츠클럽이 운동부의 전지훈련, 교류전, 합동훈련을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거나 전문 선수반과 합동 훈련을 하는 형태다.

스포츠클럽에서 학교 체육교사나 강사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는 체육 전문역량 함양 지원형 사업도 운영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향후에도 지역 내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가 협력해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우수 사례를 알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유소년 축구선수 '부정 선발' 혐의 인천 유나이티드 직원 입건



INCHEON UNITED F.C.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40대 직원이 유소년 축구선수를 부정 선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유나이티드 직원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인천 유나이티드 산하 유스팀에 지인의 추천을 받은 학생 1명을 정식 입단 절차 없이 부정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스팀 선수 선발 권한이 있는 A씨는 학생 1명을 B감독에게 추천했다. 이 학생은 입단 테스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합격했다.

경찰은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압수수색 대신,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그동안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수를 추천한다고 해서 모두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학생 1명 이외에 부정 선발 학생은 없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 정부 '주회 운동 시간' 목표 “스포츠 즐길 환경 드립니다”

동아일보
이상훈 특파원

2022.10.29

《한 주에 한 시간은 운동하고 어렸을 때부터 팀 스포츠에 참여해 리더십과 단합을 배운다. 비만 치료에 정부가 힘을 보태며 자전거 타기를 정책으로 지원한다.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운동의 힘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서울헬스쇼 11월 1일 개막... 생활체육 어떻게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준비 되셨죠? 뮤직, 스타트!”



10일 오전 일본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 이날 1964년 도쿄 올림픽 기념으로 제정한 공휴일인 스포츠의 날(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맞아 도쿄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레츠 조인 스포츠(Let's join sports)' 행사가 열렸다. 2020 도쿄 올림픽 여자농구 대표 미요시 나호(三好南穂)가 무대에서 “다 함께 체조해요”라며 흥을 돋우자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음악에 맞춰 일본 '국민체조'인 라디오 체조로 몸을 풀었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27개로 종합 3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엘리트 스포츠 강국임을 뽐낸 일본은 생활체육 저변도 세계적으로 단단한 나라다. 일본 정부는 '스포츠의 힘으로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를'이라는 공식 슬로건을 내걸었다.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는 사회 실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스포츠 산업 발전, 지역 활성화, 장애인 복지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 “운동 하고 나면 공부 더 잘돼요”

육상경기장 체육관이 있어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찾는 고마자와 올림픽공원에는 스포츠의 날을 맞아 각종 운동 이벤트를 즐기러 온 시민들이 가득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암벽 등반 체험을 하러 온 회사원 나오미 씨(39)는 “주말마다 아이와 공원에서 운동하는데 오늘은 이벤트를 즐기러 찾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동네 어디서나 운동복 입은 학생들이 운동기구를 들고 '부카쓰(部活·운동부 활동)' 하러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구립 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는 주말마다 학교 운동부가 출전하는 각종 대회가 열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 75.1%, 여중생 65.2%가 하나 이상의 운동부에 소속돼 스포츠를 한다. 정규 체육수업 이외에 생활체육 경험이 있는 10대가 26%인 한국과는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다.

전국 대회 입상, 국제 대회 출전을 목표로 하는 학생 선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 취미로 운동을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스포츠 저변이 넓다. 올 8월 열린 일본 고교야구 선수권대회(고시엔) 지역 예선에 참가한 고교는 3549개교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 고교 야구팀이 90개인 한국보다 약 40배 많다.

도쿄 세타가야구 초등학교 6학년 유쓰키(12)는 매주 2회 방과 후 농구 클럽 활동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농구 연습을 못 한 지난해에는 '선생님, 친구와 농구를 즐기던 일상에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는 글짓기로 상을 받았다. 유쓰키는 “농구를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 공부가 더 잘된다. 농구가 없는 학교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 '주 1회 1시간 운동' 목표

일본 정부는 주 1회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인구 비율을 뜻하는 '스포츠 실시율'을 2026년 70%까지 끌어올리는 '5개년 스포츠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스포츠 시장 규모를 15조 엔(약 150조 원)으로 키워 스포츠 관련 산업을 경제 주요 축으로 삼겠다는 목표도 있다.

하기 유미코 도카이대 체육학부 교수는 "스포츠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진흥책도 다양하다. 전국 초중고생 대상 체력 테스트에서 학생 85%가 중간 등급 이상을 받게 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체력 향상 정책을 편다. 스포츠 주무 부처 스포츠청은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회사를 '스포츠 응원 기업'으로 지정해 모범 사례로 홍보한다. 올해 스포츠 응원 기업은 623곳이다. 화장품 기업 가오(花王)는 자체 개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운동을 독려하면서 설정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

“고령화사회 日, 운동 친숙하게 정책 펴”

무로후시 日 스포츠청 장관

“성별 등 떠나 스포츠 친해지면, 삶의 질 향상되고 의욕 높아져”

“스포츠를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국민들이 젊은 시절부터 운동에 친숙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무로후시 고지(室伏廣治·48·사진) 스포츠청 장관이 14일 도쿄 정부청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일본의 스포츠 진흥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스포츠청 장관의 한국 언론 인터뷰는 처음이다. 일본 육상계의 세계적 스타인 그는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2011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에서 해머던지기 금메달을 땀다. 은퇴 뒤 생체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교수로도 일했다. 이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스포츠국장 등을 거쳐 2020년 10월 장관에 취임했다.

—일본 스포츠청은 어떤 곳인가.

“2020 도쿄 올림픽 유치 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스포츠 관련 조직을 모아 2015년 출범했다. 국민 건강 증진, 지역 활성화, 경제 발전,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국제 교류 강화 등 스포츠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다.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5년 단위의 스포츠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

—스포츠는 왜 중요한가.

“마음과 신체가 건강해진다. 스포츠와 친해지면 성별, 연령,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 의욕이 높아진다. 그래서 '스포츠 인 라이프'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 경기 단체, 스포츠 산업계 등과 다양한 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 스포츠를 어떻게 다루나.

“인간의 신체는 20세 전후에 정점에 도달한다. 그 시기에는 적절한 자극을 몸에 줘야 한다. 성장기에 균형 잡힌 운동만큼 중요한 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운동을 안 하고 마음의 건강 또한 잃은 아이가 많아졌다. 학교에서 충분한 운동 시간을 확보해 내실 있는 체육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임하고 있다.”

—한국과의 스포츠 교류 계획은...

“2002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훌륭한 경험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도쿄 올림픽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 등을 통해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

주간 스포츠 소식

"저희 경기가 위로가 됐으면"...한마음으로 일군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금메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2533&plink=ORI&cooper=NAVER

프로스포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해 이벤트 취소...검은띠 부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32498168&mediaCodeNo=258>

검은 리본 달고 묵념하는 선수들...스포츠도 '이태원 참사' 추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910.html

"피로 얼룩진 카타르 월드컵"... 화려한 걸모습 뒤엔 인권 논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2912321183454>

"스포츠 인권침해 막는다" 의정부시, 직장운동부 인권 교육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8_0002065339&cID=10817&pID=14000

스포츠윤리센터, 김병지·이대훈 홍보대사 위촉

<https://www.news1.kr/articles/4845947>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

<https://isplus.com/2022/10/31/sports/sportsgeneral/20221031133024917.html>

UFC 스포츠, 외국인 매출 70%...집중 공략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201501

'스포츠 영웅' 이봉주 "영광스러운 상...마라톤 후배들도 힘내길"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7087200007?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